금호산업 매각가 6천억 후반대 될 듯

채권단 22곳 중 9곳 이상 희망…"지연 될수록 손해" 공감

박회장측 6503억원과 금액차 적어…이르면 28일 결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금호산업 매각 희망가를 취합한 결과 전체 채권단의 절반 가까이가 6000억원 중·후반 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제시한 인수가 6503억원과 금액 차가 크지 않아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5일까지 희망가를 제시한 22개 채권단 중 3~4곳은 박 회장 측이 공식 제안한 가격(6503억원·주당 3만7564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또 다른 6개 채권단은 박 회장 측 제안 가격에 5%가량의 프리미엄을 얹은 6800억원 정도를 제시하는 등 전체 22개 채권단 가운데 최소 9곳 이상이 6000억원대 후반의 매각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은행은 주당 4만원 선인 7000억원 선을 희망했으며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산업은행에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중 가장 많은 매각가인 1조원대를 제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의결권 비율은 14.7%로, 미래에셋에 우호적인 FI(재무적 투자자) 의결권까지 합쳐도 범 미래에셋의 의결권은 25% 정도에 그친다. 이들도 채권단 내부의 이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채권단이 6000억원대 후반의 금액을 희망한 것은 박 회장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가격을 제시할 경우 매각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자칫 시간만 끌다 다시 주가가 떨어져 채권단의 회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매각작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주주,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담감 역시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2개 채권단이 제시한 희망가격을 토대로 이르면 28일까지는 최종 매각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9월 중순까지 박 회장 측에 최종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비현실적인 매각가로 인해 겉돌던 금호산업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호남 대표기업인 금호산업의 매각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동위에 파업 중재 신청

노조 "결과 상관없이 파업"…광주시 적극적인 중재 나서기로

전면파업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지난 25일 오후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 19일 16차 본교섭에서 노측과 노동위원회 중재 요청 방안을 협의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며 "단체교섭과 관련해 노측이 수차례 중재 협의를 거부해 노동위에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신청한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규정에 따라 중재 개시일로부터 15일간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 노동위의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노사 양측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위 중재를 통해 이번 단체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측은 그러나 "단체교섭 중에 회사가 왜 중재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파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분규가 중재신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노동위가 중재를 개시하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의 현 쟁의행위가 불법 파업으로 바뀌어 노사관계가 오히려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윤장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노사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 노사 양측과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지역 기업 홍보 商議가 하겠습니다"

광주상의, 기업들과 소통 강화

광주상공회의소가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를 직접 맡기로 하는 등 현장 기업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6일,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상의가 직접 이들 기업의 홍보 업무를 맡기로 했다.

홍보가 필요한 기업의 의뢰를 받거나 직접 수요 기업을 찾아가 홍보업무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상의와 현장 기업들의 간격을 좁힐 방침이다.

또 아직 상의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의 내 홍보팀을 강화하고 기업체 홍보 매뉴얼도 제작하기로 했다.

회원 기업간 교류와 협력의 창구 역할도 강화해 상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유옥진 광주상의 사무국장은 "우리 지역 기업의 호응을 얻어야 상의도 존재할 이유가 생긴다"며 "기업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47.46P ↑…한숨 돌린 증시 대북리스크 해소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훈풍'에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간 26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47.46포인트(2.57%) 오른 1894.09로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22.01포인트(3.41%) 오른 667.44로 장을 종료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186.0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매각 무산

호반건설과 본계약서 이견…계약금 200억원은 돌려줘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던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매각이 7개월 만에 무효화됐다.

호반건설은 올 초 낙찰받았던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와 관련, 계약 상대방인 호남대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께 부지 매각계약을 해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지는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리빙이 지난 1월 호남대로부터 165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본계약 과정에서 양측이 계약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매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 측이 내놓은 입찰 보증금 200억원은 애초 호남대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몰취한다고 했으나 실제론 일부를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던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호남대는 계약해지에 따라 H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를 상대로 매각을 위한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대 쌍촌동 캠퍼스 부지는 6만7278㎡(2만350평) 규모로 상무지구와 가깝고 교통편도 좋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94.09 (+47.46)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1)

▲ 코스닥 667.44 (+22.01) ▼ 환율 (USD) 1186.00원 (-9.30)

가장 받고싶은 추석 선물은 한우

농협유통 설문 29% 응답…상품권·과일·수산물 順

추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 동시에 주고 싶은 선물은 한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517명(남 253·여 264)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추석 선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한우(29%)·상품권(25%)·과일(15%)·수산물(11%), 주고 싶은 선물은 한우(24%)·과일(21%)·상품권(15%)·건강식품(10%) 순으로 꼽았다.

선물 구매 시 고려하는 점은 가격대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용성(32%), 품질(15%), 원산지(6%), 브랜드(3%) 순이었다.

선호하는 선물 가격대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5만~10만원대를 선택했고 10만~20만원(22%)과 3만~5만원(21%)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추석을 앞두고 10만원 대 한우 실속세트 구성을 강화했다고 농협유통은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9월 2~11일 한가위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한다. 사과·배·한우·굴비 등 신선식품 세트와 통조림·샴푸 등 가공·생활용품 세트 100여개 품목을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